

금요 양성 2026년 7월 17일

재속프란치스코회 예절서 알기 (6부)

재속프란치스코회 예절서 내용을 잘 아는 것은 영속 양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재의 6부는 형제회나 개인 묵상및 토론을 위하여 예절서에 삽입된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예절서안에 실린 예술 작품들 (모두가 공백 페이지에 실려 있다)

영속 양성을 위해 예절서 사용하기 (토론을 위한 핵심 논점 예시) 예절서를 위해 선정된 그림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장면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성녀 클라라의 “*바라보기, 숙고하기, 관상하기, 닦기*”를 활용하여 프란치스칸 영성을 담은 비시오 디비나 (거룩한 바라봄)를 할 수 있다.

1. 바라보기— 사랑에 찬 지속적인 바라봄 +예절서에 있는 그림 하나를 선택한다. +그림의 어느 부분에 시선을 둔다. +분석하지 않고. 기도하려고도 “애쓰지” 않는다. +성녀 클라라가 말한 것처럼 “영원의 거울”과 함께 그냥 머무른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이다.

2. 숙고하기 — 이미지가 말하도록 하기 +어떤 세부 사항이 당신의 주의를 끄는가? +어떤 감정이나 움직임이 보이는가? +이것이 성 프란시스의 겸손, 가난, 자비, 또는 사랑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 주는가? +자신의 어떤 면이 그것에 의해 드러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성녀 클라라의 영성은 프란치스칸 영성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우리를 관계 안으로 초대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

3. 관상하기 - 이 신비안에 편안히 머무르기 +이미지가 고요함의 장소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성 프란시스의 시선을 통하여 자신을 보실 수 있게 맡긴다. +숙고를 할 때 느낀 진리가 사고(생각)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한다.
클라라는 바로 이 순간이 영혼이 “변화”되는 때라고 하였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놔두는 것이다.

4. 닦기 — 바라본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 +당신이 본 것으로부터 어떤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흘러나오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가난, 겸손, 자비 그리고 꾸준한 사랑을 성프란시스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당신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는가?
이 단계를 통하여 비시오 디비나가 단순히 미적인 감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 준다. 그것은 프란치스칸적인 것이 되는데 - 곧 육화적이고, 실천적이며, 삶으로 살아내는 영성이 된다.

다음은 예절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림들이다. 영문 제목을 클릭하면 온라인 이미지에 연결된다.

[Francis the Knight on Horseback](#) (말탄 기사 프란시스코)

(바실리카) — 서두 앞 페이지에

Stigmata (오상)

(지오토) ----- 1부 예절 앞 페이지

St. Francis Preaching to the Birds (새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치스코)

(지오토) ----- 43페이지 앞

Portrait of St. Francis (성 프란치스코의 초상화)

(치마부예) ----- 115 페이지 앞

San Damiano Cross (다미아노 십자가)

(성녀 클라라 대성당)-- 137 페이지 앞

토론을 위하여:

- + 이 프란치스칸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관찰을 하게 되었는가?
- + 그림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 + 이 작품들을 묵상한 후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다음 주: 예절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글들

2024년 영문 예절서는 Gospel to Life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https://gospel-to-life-bookstore.square.site/product/ritual-of-the-secular-franciscan-order/65?cs=true&cst=custom>